

2016. 1. 28. 목요일

대구환경공단 제9호

중 국 환 경 소 식 지

수석대표 이상대 (☎ /)

부대표 김기곤 (☎ /)

중국 강소성 의흥시 녹원로 501호 환보과기빌딩 B청사 403실. (☎:)

1. 『2016년 중국의 환경분야 전시회 안내』

- 2016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환경분야 전시회를 안내하오니 전시 또는 참관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 칭	기 간	장 소
상하이 국제 수처리기술 및 설비 전시회	03. 15 ~ 03. 17	상하이
제8회 중국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전람회	04. 04 ~ 04. 06	베이징
2016 제17회 중국 국제 급배수 수처리 전시회	04. 07 ~ 04. 09	베이징
2016 제17회 중국 국제 환경감측기기 전시회	04. 07 ~ 04. 09	베이징
2016 제12회 중국 청두 국제 환경보호 박람회	04. 14 ~ 04. 16	청 두
중국 환경 박람회	05. 07 ~ 05. 09	상하이
제16회 중국 국제 배수, 물펌프, 밸브 전시회	05. 12 ~ 05. 14	다 렌
중국 북경 국제 환경보호 및 도시생태 박람회	07. 19 ~ 07. 21	베이징
광저우 국제 환경감시 계기 전시회	08. 20 ~ 08. 22	광저우
광저우 국제 공기정화상품 및 기술 전시회	08. 20 ~ 08. 22	광저우
중국 국제 생태환경기술 장비 박람회	09. 14 ~ 09. 16	베이징
제19회 북경 수질환경 및 멤브레인 박람회	10. 13 ~ 10. 15	베이징
홍콩 환경보호 국제 무역 박람회	10. 26 ~ 10. 29	홍 콩
광저우 국제 환경보호 박람회	11. 10 ~ 11. 12	광저우

2. 중국 환경산업의 2016년 전망과 기업합병 현황

□ 2016년 환경산업 전망

- 환경보호부의 주요 목표

- 최근 열린 '2016년 전국환경보호업무회의(全國環保工作會議)'에서 13차 5개년 발전계획 기간의 중점 업무로 대기, 수질, 토양 3대 오염처리 행동계획 시행을 강조함.
- 중국 환경보호부(環保部)에 따르면, 2015년으로 마무리된 12차 5개년 계획의 오염물질 배출 감축 목표는 이미 사전에 목표치를 완수했으며,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환경 품질 개선에

주력할 계획임.

- 환경보호부는 3대 오염처리행동계획 시행 외, 녹색성장의 내재적 발전모델 구축, 생태문명 건설의 공간 구도 개선,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환경리스크 예방 강화, 녹색제조·녹색생활 구현 등을 13.5규획기간의 업무 방향으로 설정함.
- 구체적으로 중국 주요 도시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미세먼지 개선에 총력을 가해 주요 도시의 PM2.5 농도를 3% 낮추고, 대기질이 양호한 일수 비율을 7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지표수 급수지표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지표도 총 통제지표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환경리스크 방면에서 중금속오염 배출정도, 돌발적 환경사고에 대한 대비에 초점이 맞춰짐.

○ 수 조 위안대의 환경시장 기대

- 국무원은 분야별 오염처리 및 예방 행동계획으로 「대기오염10조(大氣十條)」(2013년), 「수질오염10조(水十條)」(2015년)을 발표했으며, 2016년에 「토지오염10조(土十條)」가 발표될 예정임.
- 중신젠투(中信建投)는 현재 중국 토지오염처리 분야의 잠재 시장 규모가 4조 5천억 위안에 이르고, 2016-2020년 연평균 49%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함.
- 수질오염 분야에서는 2015년 9월 환경보호부와 주택건설부(住建部)가 수질오염10조의 세부 시행방안으로 <도시 오수처리업무가이드(城市黑臭水体整治工作指南)>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4년간 4000억 위안 규모의 중국 오수처리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VOCs 처리 및 배출량 최소화가 가장 유망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임.
- 이번에 열린 환경보호부 업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VOCs 종합처리에 대한 규제를 전면 시행하고 2016년 VOCs의 '제로증가'를 특별히 강조한 바 있음.
- 이에 따른 13.5규획기간 VOCs 처리 및 모니터링 설비 등 관련 시장규모는 천억여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환경 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강력한 신환경법의 시행과 더불어 하위 지침들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중국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것임

□ 중국 환경산업의 기업합병 현황

○ 2015년 환경산업의 기업M&A 규모 400억 위안

- 지난 2년간 중국 환경산업의 기업 합병 건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 2014년 환경산업에서 발생한 기업합병 건수는 88건, 합병금액은 225억 위안이었으며, 2015년에는 합병규모가 136건, 400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 그 중 거래 규모가 10억 위안 이상인 대규모 합병사례는 11건으로 2015년 총 기업합병 금액의 30%에 이름.

- 최대 인수합병 규모는 치디테크(啓迪科技, Tusholdings)로, 칭화홀딩스(清華控股) 등과 함께 70억을 투자해 중국 고체폐기물처리산업의 선도기업인 상더(桑德)그룹의 지분 29.8%를 인수해 1대 주주에 오름.
- 서우창(首創股份)은 약 29억2천만 위안을 들여 2015년 5월 BCGNZInvestment HoldingLimited의 지분 65%를 인수한데 이어 6월 싱가포르기업 ECO Industrial Environmental Engineering을 인수하며 고체폐기물처리 사업을 확장함.
- 인수합병 분야별로는 폐수 및 고체폐기물 처리분야가 4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모니터링 분야가 11건에 이름.
- 청정기술 분야에서도 기술합병이 8.4% 증가해 거래규모가 2014년 대비 150% 이상 증가함.

○ 환경기업 M&A 증가의 배경

- 2015년 신환경보호법(新環保法)이 시행되고 관련 부처에서 약 20여건의 환경산업 지원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환경산업에서의 기업간 합병을 촉진한 것으로 보임.
- 주요 오염배출산업인 철강, 기계 등 전통산업의 대형 기업들은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보호법의 문턱을 넘기 위해 직접 환경기업을 인수하기도 함.
- 중국의 대형 건설기계장비 기업인 중롄중커(中聯重科, ZOOMLION)는 2015년 6월 4억 3천만 위안을 투자해 환경기업 2곳을 인수하며, 사업범위를 종합 환경처리 서비스업으로 확대함.
- 이종업계간 인수합병을 통해 2015년 최소 40여개의 타 업종 기업이 환경산업에 진출한 것으로 추산됨.
- 또한 작년부터 중국정부가 민간자본과 협력하여 PPP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는데, 환경오염 처리분야에서 정부의 PPP사업 투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동종 업계간 인수합병의 계기를 마련해줌.
- 정부 위탁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재정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 환경기업들이 소규모 환경기술기업 인수에 나서기 시작함.
- 동팡위안린(東方園林)은 환경산업의 PPP 투자기회를 주목하고, 2015년 4분기동안 30억 위안을 투자해 수질오염, 고체폐기물 등 분야의 소규모기업 5곳을 인수함.

3. 중국인의 성격 및 특성 소개

○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기반 비교

한 국	중 국
오랜 불교·유교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근대 이후 기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음	오랜 유교·도교적 전통이 남아있으나 최근 사회주의 체제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음.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윗사람을 대할 때 지켜야하는 예의범절이 있음.	나이 또는 계급간 권위의식이나 계층의식이 약 하여 사장과 기사가 동석하여 식사를 같이하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친구가 가능함.
이성보다 감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적인 의리를 앞세움.	일부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임.
대부분의 국영기업의 CEO는 50~60대임.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에 이르는 문화혁명기간 동안 대학교육이 폐지됐던 영향으로 국영기업에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CEO가 많음.

- 일반적으로 중국인이 매우 가깝다고 이야기 할 경우 수백km 먼 거리일 수도 있다. ‘즉시’라는 의미의 중국말 ‘곤(馬上)’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구체적인 시간을 확인하지 않으면 한국인의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 주요 도시의 행정구역은 광역시 개념으로 베이징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27배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중국인이 해당도시를 500만 명이라고 소개해도 실제 도시외곽에 거주하는 사람이 태반이며 실제 도시인구는 100만 명 미만인 경우도 많다.
- 관시(關係)를 중시하는 중국인
 - 넓은 지역, 많은 인구, 다양한 민족(56개 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특성 때문인지 일부 중국인들은 지연·학연 등 각종 이해관계에 얽힌 ‘관시(關係)’를 중요시 한다.
 - 중국과의 무역, 투자, 공무 수행, 시장 정보 수집, 지방여행 등의 경우 중국인과의 관시를 잘 활용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 동일한 집단 내에서는 철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나 집단 외부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친분 있는 중국인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도움을 받고 소개편지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관시는 중국과 인연을 맺고 사업을 하는 경우 매우 필요한 사항이다.
 -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이래 성역 없는 부정부패 척결을 펼치고 있다. 강력한 반(反) 부패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1-11월만 해도 부정부패 혐의로 적발된 공직자 수만 3만9천 여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하루 평균 공직자 110명이 부정부패 혐의로 입건된 셈이다. 반부패 폭풍은 고위층, 군대뿐만 아니라 국유기업에서도 예외 없이 불고 있다. 하여 사유기업은 관찮으나 국유기업 혹은 정부인사들은 사치한 식사장소를 부담스러워하고 값진 선물 수수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유기업과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계산이 매우 치밀함.

- 시장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판매할 때 개수나 묶음으로 판매하지 않고 저울로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해서 판매한다. 예를 들면 수박을 살 때 한국 사람은 보통 수박 한 통의 가격을 묻는데, 이때 절대 한 통에 얼마라고 답변하지 않고 한 근에 얼마라고 답변한다. 만일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제서야 무게를 달고 가격을 말해준다.

○ 독특한 식사문화 (식사는 ‘萬事’)

-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먹는 문화를 매우 중시하며 마치 먹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될 정도로 먹는 것에 투자를 많이 한다. 한국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여 옷 입는 것을 중시하는 반면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입는 것에 신경을 덜 쓰는 편이다.
- 중국에서는 요리 하나의 양이 매우 많고 요리의 종류 또한 다양하여 최소 5~6명이 먹어야 제대로 먹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이 초대하는 식사자리에 가면 당사자 외에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낯선 사람이 자리를 함께해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일본이나 서양은 개인 요리가 정해져 있는데 중국은 회전 원탁에 하나의 요리를 큰 그릇에 올려 놓고 판을 돌려 가며 각자 그릇에 덜어 먹는 습관이 있다. 식사자리와 술자리는 함께 이루어지며 2·3차 등은 없는 것이 보통이다. 술은 첨잔이 일반적이며 담배를 즐겨 피우는데, 식사자리에서 담배를 멀리 있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것은 중국에서 큰 친밀감의 표시이다.
- 일반적으로 중국인은 날 것과 찬 것을 잘 먹지 않으며 채소도 볶거나 살짝 데쳐 먹는다. 맥주나 콜라도 차가운 것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음식이 올라오는 순서는 찬 음식부터 따뜻한 음식 순으로, 저렴한 음식에서 고급 음식 순으로 나온다. 식사비는 한국처럼 한 사람이 계산한다.

○ 중국의 4대 요리

요 리 명	특 징
粵菜(광둥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이 담백하고 연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본재료의 맛을 살리는 것을 강조함.
川菜(쓰촨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얼하고 매콤한 맛으로 잘 알려져 있음. - 고추, 산초, 후추가 거의 빠지지 않음. - 향이 좋고 기름기가 돌며 색상이 짙음.
魯菜(산둥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선택을 중요시 여기며 조리기술이 정밀하고 섬세함. - 양념으로 맛을 맞추는데 뛰어남. - 재료의 맛이 싱싱하고 담백, 깔끔함.
蘇菜(장쑤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징과 양저우의 음식. - 담백한 맛이 일품이며, 호수에서 잡은 게·민물생선이 주재료임. - 음식의 빛깔과 모양을 중요시 해서 재료와 음식의 색깔 배합을 중요시함.

○ 중국인의 언어습관

- 일반적으로 중국인은 고도의 표정관리가 가능하고 'NO' 라는 의사표시를 잘 하지 않는다. '考慮(고려 하겠다)'는 일반적으로 'NO' 라는 표현인 경우가 많고, '好(좋다)' 라고 답변할 때도 상대방의 표정과 상황을 잘 살펴야 'YES' 인지 'NO' 인지 알 수 있다.
- 한국 사람은 의사표현이 직선적이고 의사결정이 빠른 문화에 익숙해서 기다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지만, 중국 사람은 여유(만만디) 문화에 익숙하며 말할 때도 의사표현이 완곡한 편 이어서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화법이 발달해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협상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성급하게 직설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 통역을 통해 중국인과 의사 소통할 때 조선족 교포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한국어의 각종 외래어, 기술용어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로 상대방과 대화할 때 한국 사람은 버럭 화부터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태도는 매우 침착하고 냉정한 편인 중국 사람과의 협상에서 승산이 없다. 특히 언어가 이해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 일부 중국인은 '미안합니다(對不起)' 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며 잘못을 했더라도 변명조의 이야기가 많다. 한국 사회는 잘못을 인정하면 너그러이 용서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국은 이와 달리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받기보다는 처벌받기 쉬운 전제 군주 전통과 문화혁명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중국인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변명조의 이야기만 늘어놓을 경우 한국 사람은 쉽게 흥분하여 화를 내기 쉬운데 참을성 있게 상대방의 변명을 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일부 중국인은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매우 잘해주며, 중국어 몇 마디만 해도 중국어를 엄청 잘한다고 칭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